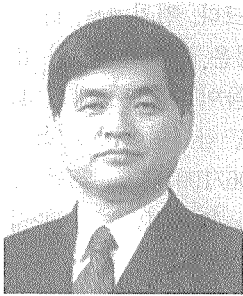


인도 IT 강국



본회 전자산업연구소장
경제학박사 윤 동 훈

1. 머리말

인도는 지난 10년간 다른 경제여건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IT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인도정부는 글로벌화와 자유화라는 양대 정책에 의한 경제개혁을 차분히 진행하면서, 요가가 키워드인 정적인 국가에서 첨단분야인 정보기술국, 동적인 국가로 변모되고 있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동면의 인도가 글로벌 경제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하였다.

연구소와 정부 차원의 IT정책은 방방곡곡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정책은 모든 영역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입안되었다. IT산업이 발달될수록 고용이 확대되고 재정도 풍부해질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자정부나, 원격지에서의 전자도서관, 시골에서의 컴퓨터사용에 대해 듣는 것이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닌 것이다.

이메일은 통신의 기본수단이 되었으며, 소프트웨어메이커는 황금알을 낳은 벤처로 변모하였다.

특히, 세계에서 인도의 소프트웨어회사들은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로 점점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도 앞서갈 수 있었다. 소프트관련회사들은 인도의 IT수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대단히 높아졌다.

2. 전자제품의 세계 교역 및 생산 추이

세계 전자제품(하드웨어) 생산은 2000/2001년도에 1조 376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생산은 6120억달러이고, 생산 합계는 1조 998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계는 1996/1997년도 1조 500억 달러, 3500억 달러, 1조 4000억 달러이고, 1997/1998년도 1조 1240억 달러, 4030억 달러, 1조 5270억 달러이며, 1998/1999년도 1조 2020억 달러, 4630억 달러, 1조 6650억 달러이고, 1999/2000년도 1조 2860억 달러, 5320억 달러, 1조 8180억 달러이며, 2000/2001년도 1조 3760억 달러, 6120억 달러, 1조 9880억 달러이다.

인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계 및 세계시장점유율은 각각 1996/1997년도 57억 달러 17억 달러 74억 달러, 0.53%이고, 1997/1998년도 58억 달러, 28억 달러, 86억 달러, 0.57%이며, 1998/1999년도 58억 달러, 44억 달러, 102억 달러, 0.62%이고, 1999/2000년도 64억 달러, 57억 달러, 121억 달러, 0.67%이며, 2000/2001년도 66억 달러, 80억 달러, 147억 달러, 0.74%이다. 소프트웨어의 생산이 하드웨어의 생산을 지난해 능가한 것이다.

세계 교역에 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계는 1996/1997년도 7000억 달러, 2000억 달러, 9000억 달러이며, 1997/1998년도 7490억 달러, 2200억 달러, 9690억 달러이고, 1998/1999년도 8010억 달러, 2420억 달러, 1조 430억 달러이며, 1999/2000년도 8580억 달러, 2660억 달러, 1조 1240억 달러이며, 2000/2001년도 9180억 달러, 2930억 달러, 1조 2110억 달러이다.

세계 교역에 있어 인도의 수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계, 세계시장점유율이 1996/1997년도 8억 달러, 11억 달러, 20억 달러, 0.23%이고, 1997/1998년도 7억 달러, 18억 달러, 25억 달러, 0.26%이며, 1998/1999년도 4억 달러, 30억 달러, 35억 달러, 0.34%이고, 1999/2000년도 6억 달러,

40억 달러, 46억 달러, 0.41%이며, 2000/2001년도 10억 달러, 59억 달러, 70억 달러, 0.58%이다.

이와 같이 세계 생산에서 인도의 점유율은 지난 5년 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간 7.3%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실적은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연간 증가율이 26.3%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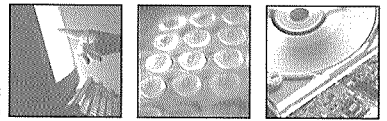
3. 품목별 수출

2000/2001년도에 인도의 수출은 전년도 대비 달러 기준 48.5%라는 놀라운 수출증가율을 보였는데, IT산업의 기여가 크다. 전자제품, IT, 컴퓨터소프트웨어/서비스산업은 총수출산업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년도 대비 44.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금액면에서 8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1996/1997년도 25억 달러, 1997/1998년도 33억 달러, 1998/1999년도 42억 달러, 1999/2000년도 55억 달러였다.

이 하이테크분야는 컴퓨터소프트웨어/서비스가 59억 달러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텔레콤서비스/프로젝트가 8억 달러로 10%, 전자부품이 4억 달러로 5%를 점하면서 3위에 랭크되고 있다.

전자제품과 컴퓨터소프트웨어/서비스의 생산은 147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21.1% 증가하였다. 1996/1997년도 76억 달러, 1997/1998년도 86억 달러, 1998/1999년도 105억 달러, 1999/2000년도 121억 달러였다. 지난 5년간 연간 17%로 증가한 것이다.

이 부분의 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6/1997년도의 생산 대비 수출 점유율은 26.7%였고, 1997/1998년도 30.4%, 1998/1999년도 34.1%, 1999/2000년 38.1%, 2000/2001년도 47.6%였다. 지난 5년간 거의 배 가까이 뛰었다.



인도의 전자제품, IT, 소프트웨어의 수출 대상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은 1998/1999년도에 159개국에서 1999/2000년도에 169개국, 2000/2001년도에 172개국에 달하였다.

주요 수출지역은 북미이다. 이 지역으로 수출은 1999/2000년도의 27억 달러에서 2000/2001년도에 3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인도의 전자제품, 소프트웨어/서비스, 텔레콤프로젝트, 비디오소프트웨어 등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EU와 남아시아가 또한 주요 2대 수출지역이다. 특히, 대양주로의 수출은 1999/2000년도의 55백만 달러에서 2000/2001년도에 191백만 달러로, 245% 증가하였다.

전자제품, 컴퓨터소프트웨어/서비스부문은 2000/2001년도의 인도 총수출 507억 달러의 15.8%를 점하였다. 이 부문은 1996/1997년도에 7.2%, 1997/1998년도 8.9%, 1998/1999년도 11.3%, 1999/2000년도 13.3%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텔레콤 서비스/프로젝트, 비디오 필름 이 각각 수출 순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1999/2000년도의 40억 달러에서 2000/2001년도에 5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텔레콤 서비스/프로젝트가 동기간 약 8억 달러였으며, 비디오소프트웨어가 1.6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0/2001년도에 처음으로 CDR이 32백만 달러 수출되었고, Moser Baer사가 제조, 수출한 것이다.

4. 컴퓨터 소프트웨어/서비스부문

컴퓨터 소프트웨어/서비스의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58.9% 성장하였다.

1999/2000년도의 40억 달러에서 2000/2001년도에 59억 달러에 달하였다. 소프트웨어는 세계경

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세를 유지하였다. 이비즈니스와 신규 진입기업 등 새로운 정보 기술사업이 수출 증가에 이바지한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생산은 8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였고, 이 중 국내용은 20억 달러로 전년도의 16억 달러에서 20% 이상 늘어난 반면, 수출용은 59억 달러로 생산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6/1997년도의 61.2%에서 1997/1998년도 66.2%, 1998/1999년도 68.3%, 1999/2000년도 70.3%, 2000/2001년도 74.3%에 이르렀다.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1990/1991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자체 생산분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후 외주 생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기의 하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인도 소프트웨어사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2000/2001년도 수출분에 있어 자체분은 44%로 전년도의 40% 보다 증가하였고, 아웃소싱분은 58%로 전년도의 60%보다 줄어들었다. 아웃소싱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회사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1996/1997년도에 592개사, 이후 각 연도에 625개사, 913개사, 1720개사로, 2000/2001년도에 2473개사에 달하였다. 21백만 달러를 수출하는 상위 44개사가 수출액의 70.9%를 점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1997/1998년도에 66개국이었으며, 다음 연도에 85개국, 90개국에, 그리고 2000/2001년도에 93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액의 62%가 수출되어 가장 큰 지역이며, EU가 22.2%로 2위에 랭크되었고, 한국과 일본 등에는 3.3%의 소프트웨어가 수출되었다.